

종합심사낙찰제 정착을 위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역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철도·공항·항만·산업단지·다목적댐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축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시설공급을 담당하며 성장 초기 정부재정의 예산 제약에서 오는 턱없는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완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아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은 덤핑·부실공사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오늘날 SOC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품질과 기술 위주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낙찰자 선정에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는 공사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공사의 품질 및 성실 시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평가요소에 포함해 건설업체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현재까지 종합심사낙찰제를 완성도 높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실효성과 개선방안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

국방광장

김희수 대위
국군재정관리단



지고 있다. 이에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계약담당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중 발생하는 변수에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법령개정 시 수정 사항을 즉각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체 측에도 변경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하며, 실무를 통해 인식된 법령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달청과의 피드백을 통해 즉각 반영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업체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훌륭한 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업체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기술발전과 품질제고라는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정부와 업체의 원만한 관계를 끌어내는 가교 구실을 해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년 7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입찰을 실시했다. 처음 적용하는 만큼 담당자들은 새로운 제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먼저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했다.

둘째, 종합심사낙찰군 전용 프로그램 도입 및 모의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검증으로 제도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셋째, 자주 받는 질의사항을 편집해 배부자·담당자의 실시간 답변으로 계약 상대방의 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서 말했듯 훌륭한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관행 운운하며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업체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투수는 야구 경기 중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로진백'을 사용한다고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공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로진백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편집=정임숙 기자